



지휘 함신의  
Shinik Hahm, Conductor

# 에카테리나 리트빈체바의 라흐마니노프

RACHMANINOFF  
BY EKATERINA LITVINTSEVA



피아노 에카테리나 리트빈체바  
Ekaterina Litvintseva, Piano

2023. 4. 13. Thu. 7:30pm 롯데콘서트홀 | LOTTE CONCERT HALL

THANK YOU

##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 사 장 문형주  
부 이 사 장 안정근  
이 사 송백규 이경혜 한수향  
감 사 김일규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 2022 - 2023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마에스트로 Circle	노루그룹 하나은행
마 스 터 즈 Circle	(주)EG
말 러 Circle	한영재 (유)세봉 (주)에프에스티 (주)티에스이
브 램 스 Circle	(주)디에스케이 (주)GFS (주)골프존 어스빌리지
브 루 크 너 Circle	김석수 신승일 전동규 (주)다진
슈 베 르 트 Circle	김창석 이경혜 윤정웅 (주)면사랑 (주)세아제강 (주)제이씨케미칼 (주)풍산 영앤진세무법인
베 토 벤 Circle	김윤자 최영애 장원기 한태준 홍종관 (주)동호
쇼 팡 Circle	안정근 송백규 최승식 (주)KNW
모 차 르 트 Circle	서석호 신영만 양서윤 양세이 원장희 윤석애 전홍구 한수향 한정숙 엔피코리아 법무법인산경
하 이 든 Circle	고윤영 권영성 권용관 김성렬 김종혁 김호진 박명우 봉 욱 신갑순 심동욱 윤현숙 이근혁 이동규 이미영 이병권 장민경 장윤정 전인평 조백일 최승갑 최인규 한문성





##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



### 출발

지휘자 함신익은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미국의 다양한 오케스트라에서 음악감독 경력을 쌓아왔다. 또한 오랜 전통을 지닌 유럽과 남미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모국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다짐한다. 이후,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경험을 통해 후세를 위한 새로운 오케스트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오랜 준비를 거쳐 2014년 8월,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탄 <함신익과 심포니 S.O.N.G>을 창단한다. 함신익이 직접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간다는 신념과 후원자들의 열정이 만들어 낸 작품이다.

### 목표

-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전한다.
-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가 되고자 한다.

### 음악적 방향

-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5년까지 머물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거듭나게 한다.
-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해 최상의 연주를 추구한다.
- \* 해외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로 성장한다.

### 성과

- \* 효율적인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함신익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Shinik Hahm & Symphony S.O.N.G

T.(02)549-0046/0947 F.(02)549-004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36, EG빌딩 B1  
[www.symphonysong.com](http://www.symphonysong.com)

심포니 S.O.N.G  
YOUTUBE





ARTISTIC DIRECTOR  
**SHINIK HAHM**

# 함신익,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함신익의 인생여정은 평탄한 길보다는 험산준령을 오르내리는 등산가 또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탐험가와 흡사하다. 소년시절, 서민들의 애환이 가득한 삼양동 달동네의 개척교회에서 풍금으로 익힌 그의 음악감성은 정규적인 피아노를 배우며 성장에 속도를 더하게 된다. 그의 초·중·고 학생시절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보고 배우고 자라며 축구와 음악과 자연에 빠지게 된다. 그가 대다수 연주자들과 다른 특이한 성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때부터 예술을 접하는 태도와 시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향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은 오늘의 함신익을 형성하는데 소금같은 역할을 한다. 함신익의 보석같은 소년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가며 생성된 사명의식의 발로가 된다.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함신익은 미국으로 간다. 라이스대학과 이스트만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운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된다. 재학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고, 철학 그리고 지휘 경험을 극대화시키며 프로지휘자로서 뺨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한다. 심지어 함신익은 아스펜의 여름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다.

20대에서 30대 초반 함신익은 미국에서 전문적인 학업을 부지런하게 한다. 그 후 세계지휘콩쿨에 입상하는 과정을 거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한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에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룩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서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서 성장한다. 또한, 37세부터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서 23년간 재직한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이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을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지휘자 함신익은 대전시립교향악단(2001-2006) 과 KBS교향악단(2010-2012)의 예술 감독 또는 음악감독으로서 한국오케스트라의 중흥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 곳곳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그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다. 그가 활발하게 연주한 콘서트홀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뉴욕 카네기홀, 링컨센터, UN본부,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보스턴 심포니홀, 필라델피아 김멜센터, 스페인 빌바오, 말라가 심포니홀, 시애틀 베나로야홀, 볼티모어 마이어호프홀, 워싱턴DC 케네디센터, 독일 캄니츠 주립극장, 독일 북서지방의 콘서트홀들,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브장송 오페라하우스, 아비뇽 오페라하우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란츠리스트홀, 체코 프라하 드보르작 루돌피움, 스메타나홀, 베이징 국립대극장, 상하이 오페라하우스, 도쿄 오페라시티홀, 오사카 심포니홀, 폴란드 바르샤바 심포니 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볼쇼이홀, 태국 방콕 마이돈홀, 몽골 울란바타르 국립극장 등 그 밖의 많은 도시에서 순회연주 또는 그곳의 오케스트라들과 연주하였다.

그의 최근 행보는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우루과이 등 남미의 오페라와 오케스트라로 이어지고 있다. 그의 전형적인 열정과 섬세한 지휘가 남미 연주자와 청중들에게 어필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2006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첩두, 항저우, 귀양, 칭다오 등 중국 대도시의 오케스트라로부터 초청을 받아오고 있다.

2020년 시즌 이후 코로나로 인한 클래식 음악계의 불황은 민간 오케스트라의 존폐 문제까지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으나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깨끗한 자세로 단 한 번의 연주도 취소하지 않고 계획된 모든 연주를 성공적으로 소화해 나가고 있다. 2014년 그가 창단한 이 젊고 활기찬 오케스트라의 성장은 함신익이 오케스트라의 후원자들과 만드는 열정과 기적의 산물이다. 전문오케스트라가 쉽게 빠지기 쉬운 반복적 매너리즘을 박차고 뛰어나와 늘 새롭게 깨어나 살아있는 음악을 전달하는 사명을 지키기 위해 함신익은 오늘도 산에 오르며 새로운 것을 찾는다.

## 오늘의 연주자



FEATURED ARTIST

### 피아노 에카테리나 리트빈체바 Ekaterina Litvintseva Piano

“

그녀는 공감하는, 신중한 방식으로 음악을 파악하며, 거장으로서의 기교를 직접적으로 뽐내기보단 암시하는 방식으로 드러낸다.

- 독일 Pizzicato 저널

”

에카테리나는 어린 시절과 유년기를 북극권에서 보냈으며 맑은 공기의 극지방 바다를 창밖으로 바라보며 겨울에는 얼음 조각을 관찰하고 여름에는 툰드라의 마법 같은 색깔을 즐겼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그녀는 피아노 연주에서의 명료함과 구조 및 독특한 색채 감각을 길렀으며 섬세한 감수성과 깊은 감정 표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라흐마니노프 초기 피아노 작품으로 구성된 녹음 음반에서 그녀는 자신이 라흐마니노프의 뛰어난 해석자임을 증명하였는데, 독일의 'Concerti' 저널은 이 앨범이 가진 "훌륭한 느낌과 놀랍도록 창조적인 에너지와 깊이"를 극찬하였다. 이후 앨범은 그녀의 러시아 작곡가 작품에 대한 직관적인 재능과 친화력을 보여준 분기점이 되었다고 평가받게 된다. 그녀가 가진 다재 다능함은 Klassische Philharmonie Bonn과 Heribert Beissel 지휘 아래 제작된 모차르트, 쇼팽 및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라이브 음반에서 잘 드러났는데, 이 녹음은 탁월한 투명도와 경량감을 특징으로 하며, 표현적인 기교와 과장된 감성은 피하고 있다. 북미의 유명한 매거진 'Fanfare'는 "쇼팽 해석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순간", 독일 'Gramophone' 저널은 "모차르트의 작품 (K.271)의 자연스러운 발명가적인 느낌"이라고 평하였고 영국 'BBC' 음악 저널은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에서 그녀의 표현력 있는 깊이에 극찬하였다.

에카테리나는 러시아 북동쪽 극지방에 위치한 베링 해 옆 근처 '아나디르(Anadyr)'에 자랐다. 그녀는 피아니스트로서 일반적이지 않은 길을 걸어왔는데, 지방 음악학교에서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열정적인 방식으로 연주하는 법을 익혔고 15세 때 모스크바 국립 쇼팽 음악 대학으로 진학하여 연주의 감정적인 측면에 대해 배웠다. 이후 독일로 이주하여 쾰른 음악 무용 대학과 뷔르츠부르크 음악대학 버른트 글렘저의 마스터 클래스에서 새롭고 분석적인 시각을 습득하면서 그녀만의 독특한 피아노 연주 스타일을 개발하게 되었다. 에카테리나는 로버트 쿨렉, 루돌프 케어러, 안제이 아신스키와 함께한 수업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고 회고한다.

에카테리나는 솔리스트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러시아,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루마니아의 유명 오케스트라와도 협연하고 있다. 2012년, 2015년, 2017년 세 차례의 주요 순회공연을 통해 슈투트가르트 리더할레, 본의 베토벤 홀,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싱어 할레, 베를린 콘체르타우스를 비롯하여 함부르크 레이즈할레와 뮌헨의 헤르쿨레 살레에서 연주하였다. 최근에는 2020년 1월 조나단 블록섬이 지휘한 노스웨스트 도이치 필하모니와 함께한 그녀의 연주 (프랑크 교향적 변주곡,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부르레스크)는 TV에 생중계 되었으며 이는 2020년 가을 CD로 녹음되어 출판되기도 하였다.

1996년 이후 에카테리나는 여러 학위와 더불어 다수 입상 하였는데, 특히 10살 때 아나디르에서 열린 Chukotka 지역 콩쿠르 우승, 2008년 이스라엘 텔하이 국제 피아노 마스터 클래스 우승, 그리고 이탈리아 Città di Cantù 국제 콩쿠르에서 모차르트 연주로 "클래식 피아노 협주곡"상을 수상하였고 모로코의 Her Royal Highness Princess Lalla Meryem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였다.



## SYMPHONY S.O.N.G INTERVIEW

### Q. 피아니스트 에카테리나 리트빈체바가 보는 라흐마니노프는 어떤 음악가인가요?

저는 러시아 피아니스트로서 라흐마니노프 음악과 함께 자라며,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음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작곡가의 강렬한 감정과 진솔함을 연주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좀 더 대담하고 용감하게 말하죠. 형용할 수 없는 라흐마니노프의 깊이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요.

### Q.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 제1번의 감상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의 곡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곡을 18세에 작곡하여, 27년 후 러시아를 망명하기 불과 몇 달 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라흐마니노프의 젊은 에너지와 원숙미가 동시에 혼합되어있는 유일한 곡이죠.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선율과 예상할 수 없는 그만의 풍부한 화음이 돋보입니다. 동시에 매우 복잡한 화성을 갖고 있기도 하죠. 열정적인 그의 감정과, 다양한 색채, 그리고 음악적 상상력을 중점에 두며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 Q. 피아노를 시작하신 계기와 연주를 하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피아니스트에게는 선천적인 음악적 재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청중을 감사히 여기며 존중하고, 따뜻한 표현으로 음악을 전달하는 능력이기도 하죠.

### Q.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청중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함신의 지휘자님과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국 무대에 데뷔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롯데 콘서트홀에 오신 한분 한분에게 라흐마니노프에 대한 저의 사랑과 진심함이 깊이 전달 되면 좋겠습니다.

함신익 오케스트라·심포니 송  
2023 마스터즈 시리즈 IV

RACHMANINOFF  
BY EKATERINA LITVINTSEVA

에카테리나 리트빈체바의  
라흐마니노프

**Igor Stravinsky**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1882 - 1971]

**Concerto in D 'Basel' for Strings**

현을 위한 협주곡

**Sergei Rachmaninoff**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1873 - 1943]

**Piano Concerto No. 1 in F# minor, Op. 1**

피아노 협주곡 제1번

INTERMISSION

**Pyotr Ilyich Tchaikovsky**

표트르 차이코프스키

[1840 ~ 1893]

**Symphony No. 5 in E minor, Op. 64**

교향곡 제5번

4

MASTERS SERIES



# 세 개의 오마주(Hommage) 그리고 심포니 송

QR코드 교체

글 박희정(지휘자, 작곡가)  
Heejung Park(Conductor, Composer)

## 스트라빈스키, 현을 위한 협주곡 라 장조 “바젤”

Stravinsky, Concerto in D 'Basel' for String Orchestra

### “바로크(Baroque)”

러시아 계 미국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Igor Fyodorovich Stravinsky, 1882~1971). 그는 음악에 대한 재능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강요로 페테르부르크 대학교(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법학과를 진학하게 된다. 대학시절 법학에 큰 흥미를 갖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1903년 친구의 아버지였던 당대 러시아 최고의 관현악법 대가 니콜라이 림스키코르사코프(Nikolai Andreyevich Rimsky-Korsakov, 1884~1908)를 만난 후 음악에 뜻을 정하여 그에게서 작곡 개인레슨을 받게 된다. 이는 그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보수적인 학풍의 러시아 정규 음악 대학교육의 틀에 박힌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다채로운 작곡법을 익힐 수 있게 되었으며 독특하고 파격적인 작곡 실험을 마음껏 해볼 수 있었다. 작곡 공부를 시작한지 단 5년 만인 1908년 관현악곡 “불꽃”으로 당대 최고의 공연 기획가이자 발레단 대표 디아길레프(Sergei Pavlovich Diaghilev, 1872~1929)에게 인정을 받았으며, 이후 발레곡 “불새”(1910), “페트루시카”(1911) 및 “봄의 제전”(1913)을 작곡하여 큰 성공을 거둠으로써 작곡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1934년 러시아를 떠나 프랑스에 잠깐 귀화하였다가 제 2차 세계 대전 중 1945년 미국으로 망명하였는데 이 작품은 그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처음으로 위촉받은 작품이자 신고전주의(Neo-classicism)로 전환한 후 마지막으로 쓴 조성(tonal) 곡이다.

독특한 관현악어법과 작곡기법으로 후기 낭만주의 전위파(前衛派)로서 명성을 날리던 스트라빈스키는 1920년대 접어들며 신고전주의로 눈을 돌리게 된다. 신고전주의란 현대적인 세련미는 그대로 간직한 채 오래된 예술의 미적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예술적 시도로 20세기 초 파격 지상주의가 극에 달아 아방가드르(前衛藝術, Avant-Garde)의 무질서로 접어들던 위기감의 반작용적 사조(思潮)라 볼 수 있다. 스트라빈스키는 이 작품에서 바로크 콘체르토 그로소(Concerto Grosso, 합주 협주곡) 양식을 차용하였다. 합주 협주곡이란 소악기군(콘체르티노, Concertino)과 전체 투티(리피에노, Ripieno)가 서로 음악적 패시지를 주고받으며 다이내믹과 색채의 대비를 주는 형태의 협주곡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바로크 음악의 구조적 아름다움과 간결함에 현대적인 화성과 피아노 적인 명료함 및 또렷한 색채를 주어 세련미를 더하고 있다. 신고전주의 기법은 바로크 시대의 세속 음악과 그 성격을 같이 하는데, 지나친 파격의 무질서로부터 옛 질서를 지키려는 신고전주의적 창작 기법과 대비하여 교회 음악의 제한된 창작 굴레에서 해방되어 매우 독창적이며 자유로운 창작의 영역을 펼쳤던 르네상스 사조(Renaissance)에 적당한 규율과 질서를 가미하여 얻어낸 바로크 작품이 이러한 서로 반대되는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1946년 지휘자 파울 자허(Paul Sacher, 1906~1999)는 그의 “바젤” 현악 합주단 창단 20주년을 기념하고자 스트라빈스키에게 작품을 의뢰한다. 바젤 현악 합주단(Kammerorchester Basel)은 고(高)음악(바로크 이전)과 현대 음악을 주요 레퍼토리로 하는 단체였으며 신고전주의를 지향하던 스트라빈스키와 그 음악적 지향점이 같았다. 그는 흔쾌히 위촉을 수락하였으며 1928년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발레곡 아폴로(Apollon musagète, 1927) 작곡 이후 두 번째로 현악을 위한 작품을 쓰게 된다. 이 곡은 소나타 형식의 빠른 1악장, “Air”(아리아) 형식의 느리고 짧은 2악장, 그리고 다시 빠른 Rondo의 3악장으로 전형적인 바로크 합주 협주곡 구성을 따른다. 훗날 함부르크 시립 오페라단에 의해 발레 공연으로도 리메이크되기도 하였다. 곡은 위촉 단체의 이름을 따 바젤 협주곡이라 불린다.

## 1 악장 Vivace

소나타 형식을 따르지만 춤곡에 가깝다. 선형적 멜로디가 빠진 리듬 위주의 제 1주제 리듬 동기는 피치카토와 빠른 강세(Accent)의 조합으로 시작되는데 마치 피아노 현을 때리는 듯 한 명료한 색감을 주어 피아노를 기반으로 작곡하는 스트라빈스키의 전형(典型)을 보인다.



[1악장 제 1주제]

제 1주제부는 합주 협주곡의 형태가 발전, 확장된 세도막형식을 따르며 길이가 꽤 길다. 경과부에서 콘체르티노군(솔로 악기군)이 등장하여 숨을 고르고, 이어 복잡한 박절감과 엇박으로 구성된 제 2주제가 재미있는 “놀이”를 반복한다.



[1악장 제 2주제]

스트라빈스키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선율과 화성적 관념의 틀을 깨고 리듬과 변칙으로 재미있는 유희(遊戱)를 이루어 내고 있다. 청자(聽者)는 귀에 익숙한 선율을 찾아내려 노력하기보다는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발생하는 불규칙한 리듬의 소리를 상상해보면 곡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음악적 즐거움이 상큼한데, 바로크 시대 세속 음악의 자유로움과 연결된다.

짧은 발전부를 거치고 나면 그 길던 제시부의 제 1주제는 축약된 형태로 짧게 재현되고 제 2주제는 핵심 동기만 매우 간결한 세도막 형식으로 서술된 뒤 짧은 코다로 세련되게 악장을 끝마친다.

## 2 악장 Arioso: Andantino

아이들이 놀 때 흥얼거리는 노래이다. 스트라빈스키는 신고전주의로 작곡 방향을 선회한 후 간헐적으로 그의 작품에서 선형적인 멜로디를 사용하곤 하는데 이때 입체적 느낌을 주기 위해 선율을 두 성부 간에 교차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2악장 주제(성부교차)]

곧 이어 제 1바이올린 한 성부에 의해 원 선율이 옥타브 위에서 반복되는데 이때도 첼로는 7도 음역을 도약하며 흥미로운 색채감을 가미한다.



[2악장 주제(원형)]

### 3 악장 Rondo: Allegro

어린 시절 동네에서 흥겨운 술래잡기 놀이하듯 부산하다. 비올라에 의한 십육분음표의 빠른 내달림을 배경으로 론도 주제는 베이스의 피치카토에 위치하는데 꺾꺾꺾 뒤뚱거리는 것이 재미있다.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웃음소리와 잡힐 듯 안 잡힐 듯 빠져나가는 소년의 빠른 발걸음이 눈에 선하다.

[3악장 론도 주제]

불규칙한 강세와 박절감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자하는 후자의 태도는 전후세대(戰後世代) 작곡가들이 음악에 지나친 철학적 상징과 의미를 쏟아 부은 나머지 현학적(術學的)인 예술 우월주의(優越主義)에 빠져들어 버린 실수로 자칫 연결되기 쉽다. 스트라빈스키는 신고전주의를 통해 동심을 전달하고자 한다. 고정된 사고를 잠깐 제쳐두고 이 매력적인 작품에 차고 넘치는 순수한 음악의 유희를 즐겨보자.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 1번 올림 바 단조, 작품번호 1

Rachmaninoff, Piano Concert No. 1 in F# minor, Op. 1

### “에드바르 그리그(Edvard Grieg)”

피아노 협주곡의 거장 라흐마니노프(Sergei Rachmaninoff, 1873~1943)는 모스크바 음악원 재학 시절 그의 졸업 작품이자 첫 공식 작품(작품번호 1번)으로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Edvard Grieg, 1843~1907)를 오마주한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작곡하였다. 1892년 3월 졸업 리사이틀에서 바실리 사포노프(Vasily Safonov, 1852~1918)의 지휘와 라흐마니노프 본인의 연주로 1악장만 초연되었으며 그의 사촌이자 스승이었던 알렉산더 실로티(Alexander Siloti, 1863~1945)에게 헌정되었다. 이후 이 곡은 한동안 작곡가 본인과 세상으로부터 잊혀 있다가 25년 후 그가 미국으로 망명하기 한해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시끄러운 정세 가운데 원숙해진 작곡가의 내공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수정이 가해져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거듭나게 된다. 1919년 1월 뉴욕 카네기 홀에서 개정된 전 악장이 초연되었는데, 학창시절 모델링과 답습을 통해 도출된 주제를 그대로 살려두는 용기 있는 결단으로 노련미는 더하고 풋풋한 청년의 열정을 작품 내에서 지켜내었다. 1악장은 원곡의 모습을 상당부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2, 3악장에서는 군더더기 있던 솔로 피아노의 텍스처와 관현악법 및 구조를 세련되게 간결화 시키면서 본인만의 독특한 어법의 선율과 화성으로 덧입혔다.

라흐마니노프는 자신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이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과 닮아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그를 오마주한 작품이라 시인할 만큼 이에 대단한 자부심을 보였는데 사실 모스크바 음악원 작곡과 작품 실기 수업에서 학생이 어떤 새로운 장르를 시도할 때 기존 또는 동시대 거장의 작품을 모델링하여 연습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또한 그리그의 곡은 실로티의 주요 레퍼토리였으므로 라흐마니노프가 스승과 작품 구상 시 어느 정도 실로티의 실제적인 제안이 반영되었으리라 추측된다. 1889년 그의 첫 피아노 협주곡 작곡 시도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2년간의 습작

시절을 거친 후 졸업 작품으로서 다시금 시도한 작품이다. 당시가 스크리아빈(Alexander Scriabin, 1871~1915)이나 에릭 사티(Erik Satie, 1866~1925), 스트라빈스키,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1874~1951) 등 현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많은 천재 작곡가들이 만연하였던 클래식 황금기였음을 감안할 때, 20년 전 유행의 그리그나 차이코프스키 협주곡을 모델링하였음은 그 시사(時事)하는 바가 크다. 본인의 여러 훌륭한 피아노 솔로 작품을 제쳐 두고 이 작품을 작곡가 본인의 공식적인 첫 작품으로 내세울 만큼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노련한 작곡가가 되어 이름이 알려진 이후 개정할 때도 모델링의 주제, 작곡 기법을 상당부분 내버려둔 점은 그가 보수적인 낭만주의 작곡가로서의 노선과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에 대한 오마주에 큰 확신이 있었음을 뜻한다.

### 1악장 Vivace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의 서주와 유사하게 큰 울림 이후 피아노 솔로의 빠른 하행하는 음형으로 곡이 시작된다. 그리그 협주곡에서의 팀파니에 의한 크레센도는 호른의 팡파르로, 부점(붓점)형태로 하행하던 피아노 솔로는 셋잇단음표로, 그리고 뒤 이은 솔로의 상행 스케일과 코드잇박 진행은 호른의 팡파르 및 상/하행 스케일로 바뀐다.

[1악장 제 1주제]

사실 1악장은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과 그 구조나 음악적 아이디어가 두 악보를 서로 겹쳐두어도 병행 진행이 가능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닮아 있다. 특히 제 1주제는 위 악보에서 X표식 음표를 제한 선율의 1도-4도 상행 진행과 증4도 베이스 진행이 그리그의 그것과 동일하다. 제 2주제나 경과부 주제 역시 그러하지만 두 작품의 정서적 차이는 그 지리적 근접성을 능가할 만큼 크다. 노르웨이의 매서운 추위와 어두움은 러시아 대륙의 광활한 폭으로 확장되어 깊은 감동으로 승화된다. 그리그의 짧은 주제 동기는 라흐마니노프에게서 장려하고 애달픈 선율로 거듭나고 화성은 더욱 채색되었으며 반음계진행은 그 중요도가 더해져 마치 수채화를 유채화로 탈바꿈 시킨 듯하다.

[1악장 제 2주제]

제 2주제에서 B# 아포지아투라(Appoggiatura: 해결음에 앞서는 꾸밈음) 한 음이 전체 선율의 아련한 성격 전체를 규정 짓는다. 이 섬세함을 기반으로 곡은 라흐마니노프만의 독특한 감성을 쌓아 나간다. 휘몰아치는 종결부를 지나 발전부에 이르면 피아노 판타지 성격의 즉흥적 요소가 곳곳에 아기자기하게 매듭지어져 있다. 아련한 호른 솔로에 의해 재현부로 돌아와 소나타 형식의 전형을 이루고 큰 손의 피아니스트답게 화려한 카덴차(Cadenza)가 오케스트라 투티(tutti)만큼 웅장한 기백을 보인다.

### 2악장 Andante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이자 야상곡(夜想曲)이다. 1악장 제 2주제와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2악장 서주를 섞어 만든 어두운 서주는 뒤이은 피아노의 서정성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준다.



[2악장 주제 도입부]

주제는 짧은 동기가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식으로 계산되어 확장된 것이 아닌 즉흥적 서술로 만들어져 길이가 길고 유연하다. 쓸쓸한 밤 혼자 조용히 감상에 젖어 밀려오는 추억을 하나 둘 곱씹어가듯 선율은 정처 없이 흘러가면서 낭만주의 서정성(抒情性, Lyricism)의 절정을 그려낸다. 바순의 갈망하는 듯 한 애달픔이 잠깐 가미되고 현악은 서서히 솔로를 뒷받침해 나가면서 여러 종류의 목관 악기가 드나드는데 이것이 라흐마니노프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악장의 후반부는 밤에 우는 새들의 지저귐처럼 피아노 솔로의 스타카토 음형과 그와 함께 등장하는 현악의 서정적인 애가(哀歌)와 잘 대비된다. 74마디의 비교적 짧은 악장이다.

### 3악장 Allegro vivace

1891년 원작에서 개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악장이다. 소나타 론도 형식으로 변박의 서주부가 꽤 시끌벅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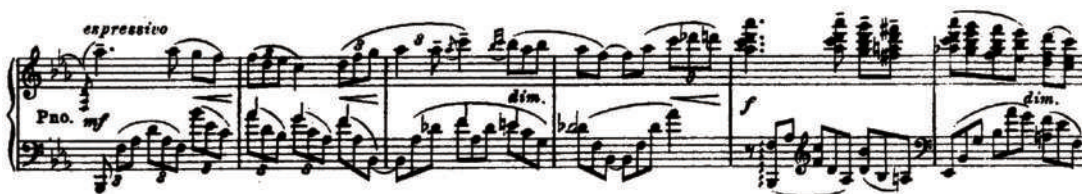
[3악장 론도 주제]

론도 주제는 러시아 민요풍의 음계 위에 Capriccioso, 즉 자유롭고 기분이 들뜨는 듯 환상적으로 음들을 엮어 나간다. 주제가 변주되어 반복될수록 전체 분위기는 꽤 긍정적이고 생기발랄한데 앞서 스트라빈스키의 바젤 협주곡의 동심(童心)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중반부로 가기 전 작곡가 본인의 피아노 협주곡 2번 1악장 주제 후반부 동기가 잠깐 등장하는데 이는 1917년 개정 시 삽입된 것이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가 그의 대작 영웅의 세계(Ein Heldenleben, 1899)에서 자신을 영웅에 빗대며 지난 작품의 주제들을 회상하는 장면을 작품에 담았듯 이제 원숙한 작곡가가 된 라흐마니노프가 조국 러시아를 떠나 망명길을 올라야 하는 심경을 작품의 회고의 형식으로 담아내었다 볼 수 있다.



[3악장 중반부 주제 1]

원작의 중반부 주제가 개정판에 잠깐 등장하고 추가된 새로운 선율이 두 번째 주제를 이루며 아름다운 추억을 그린다.



[3악장 중반부 주제 2]

러시아 민속음악에 기반을 둔 “루슬란과 루드밀라(Ruslan and Lyudmila)” 서곡의 주제 역시 이 악장에서 차용되었다. 시끌벅적하던 서주부가 재현되고 론도 주제가 마지막으로 반복되고 나면 원작 3악장의 주요 테마가 코다로 치환되어 신나게 축제의 판을 벌이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 5번, 마 장조 작품번호 64번

Tchaikovsky, Symphony No.5 in E Minor, Op. 64

### “베토벤(Beethoven)의 운명”

18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차이코프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 1840~1893)는 극심한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역사학자들은 대개 이를 두고 당대 러시아 사회 안에서 그의 동성애적 성향이 빚어낸 내적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판단한다. 보수적인 제정 러시아 사회 속에서 그의 성적 소수자로서의 입지는 그가 가진 부서질 듯 한 민감한 감성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으리라 충분히 예상된다. 일반인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그 상황 속에서 백조의 작은 날갯짓 하나에도 눈가에 이슬을 맺히는 그의 섬세한 음악성은 심적인 고통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그는 그의 나이 14세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콜레라로 여의고, 가정에 무책임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탄광촌 하급 관료인 아버지 슬하에서 마음의 상처가 깊은 불행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더욱이 그의 나이 8세 때 가슴 깊이 의지하고 사랑하였던 가정교사와의 이별은 그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과묵하고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는 후일 법률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건강마저 좋지 않던 그에게 있어 평생 동안 여인을 사랑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오히려 그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 그의 어머니 또는 그 가정교사와의 가슴 시린 이별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1876년, 자신의 음악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또한 재정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던 부유한 미망인 나데즈다 폰 메크 부인(Nadezhda von Meck, 1831~1894)과의 만남은 그의 불행했던 유년시절에의 보상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었다. 그 둘은 연인사이에 버금갈 만큼 깊은 관계에 있었지만 그녀의 뜻에 따라 오로지 편지로만 서로 마음을 전하였다. 이 교향곡이 작곡될 무렵인 1888년에는 폰 메크 부인의 든든한 재정적 및 심적 후원과 더불어 모스크바 근교의 클린에 위치한 마을에 자택과 사무실을 마련해 둔 탓에 그는 마음껏 음악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다. 차이코프스키가 폰 메크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그 동안의 교향곡들이 논리적인 면모나 구성상의 견고함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이곡에서 그러한 결점을 만회할 것이라 밝힌다. 가혹한 운명을 승리의 찬가로 이겨낸 베토벤의 교향곡 5번처럼 본인 또한 그러한 생의 승리를 염원하며 그것을 모델링하여 이 작품의 주요 동기와 전체 구조를 구성하게 된다. 훗날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 1번 교향곡과 더불어 베토벤 운명 교향곡과 그 성격과 음악적 짜임새가 가장 닮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곡은 프랑스의 테오도르 아베-랄르망(Theodor Avé-Lallemant, 1806~1890)에게 헌정되었으며 1888년 11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작곡가 본인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4번 교향곡과 마찬가지로 순환구조(cyclical) 형식으로 전 악장에 걸쳐 1악장 주제가 반복된다.

### 1악장

클라리넷에 의한 서주 주제는 베토벤 5번 1악장 주제 동기 전반부(3개의 연타 음)를 부점(부점) 리듬으로 확장한 뒤 4악장의 종결주제(4도 하행)를 붙여 만들어 내었다.



[1악장 서주 주제(운명의 동기)]

즉 베토벤 5번 교향곡의 처음과 끝을 하나의 동기로 압축시킨 형태로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 그의 강한 의지를

엇볼 수 있다. 브람스 역시 그의 교향곡 제 1번에서 5번 주제 동기 후반부(3도 하행)의 변주 및 제 2주제와 4악장 종결주제를 차용하여 전체 교향곡을 구성하였다. 죽음의 발걸음을 묘사하는 현악의 반주 위에 바순과 클라리넷이 서주의 운명의 주제를 좀 더 발전시켜 만든 제 1주제를 소개한다.



[1악장 제 1주제]

장송행진곡 주제라 불리기도 하는 제 1주제는 그의 노트를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듯이 자신의 운명과 신의 섭리를 직접 지칭하는 것이다. 어둡고 절망적인 삶속에서 때로는 폭발할 듯 한 분노로 대항하기도 하고 시리도록 아프게 울며 매달리기도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갈 듯 잔혹하다.



[1악장 종결주제]

경과적 성격의 제 2주제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호른의 기분 좋은 팡파르가 가볍게 울리고 나면 제시부 종결주제가 등장하는데 멜로디 작곡의 대가답게 그 서정성과 호소력이 모든 부조리를 덮어버린다. 기분 좋던 호른의 팡파르는 점차 음침하게 변모되면서 발전부로 들어가고 모든 주제와 동기가 총동원되어 큰 전투를 벌인다. 바순 솔로에 의해 재현부로 접어들어 소나타 형식의 전형을 따른 뒤 시야에서 사라지는 군인들의 행렬처럼 제 1주제에 의한 행진곡 풍의 코다가 서서히 분위기를 가라앉힌다.

## 2악장

세 도막 형식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악장이다. 전반부는 두 개의 주제를 품고 있는데 어두운 서주부를 박차고 뿜어 나오는 애절한 호른의 제 1주제가 심금을 울린다.



[2악장 호른의 주제]

뒤이은 오보에에 의한 두 번째 주제는 호른의 대선율과 더불어 서정성을 연장시킨다.



[2악장 오보에 주제]

주제는 각각 첼로와 오케스트라 튜티로 반복되면서 큰 울음과 함께 감정적 클라이맥스를 이룬다. 중반부에서 클라리넷에 의해 소개되는 새로운 주제는 여러 악기 군을 거치면서 그 에너지를 증폭시켜 마침내 1악장 서주 주제가 회상되면서 큰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전반부의 두 주제가 재현되고 곡이 마무리되는 듯 하다가 큰 울림과 더불어 1악장 서주 주제가 또다시 회상되어 간담이 서늘해진다. 긴 한숨으로 잠잠해지면 전반부 두 번째 주제가 회상되면서 조용히 곡이 끝난다.

## 3악장

세 개의 왈츠 주제가 각각 바이올린, 오보에, 그리고 바순에 의해 아름답게 소개된다. 첫 주제를 기준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기 그것의 변주 형태이고 조금씩 서로 다른 감정을 품는다.



[3악장 왈츠 주제]

폰 메크 부인 덕분에 그가 지금 누리는 안정과 사랑. 그로 인해 본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비록 때론 해가 뜨지 않는 겨울, 핀란드 만(灣)의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피부를 찢어 놓는다 하더라도, 또는 보수적인 당대 사회의 냉혹한 시선과 조소가 자신을 산산조각 낸다 할지라도 멈출 수 없는 환희에 대한 염원을 그린 듯 밝다. 왈츠 주제가 빠른 스타카토 심육분음표 음형으로 변주되어 긴장감을 고조시키다가 다시 우아한 왈츠가 재현되고 1악장의 우울한 서주 주제가 힘을 잃은 듯 약하게 속살을 비치면서 잠잠해지면 불현 듯 오케스트라의 큰 울림으로 막을 내리면서 다음 악장의 큰 승리를 예고한다.

4악장에 이르면 베토벤 5번 4악장에서 그러하듯, 이 교향곡의 1악장에서 보였던 운명의 동기와 장송행진곡 주제는 단조에서 장조로 바뀌면서 긍정을 노래하기 시작한다. 제시부로 접어들면서 운명에 대하여 전투를 벌이는 듯 가슴 벅찬 제 1주제가 현에 의해 등장한다.



[4악장 제 1주제]

이 주제는 앞서 1악장에서 베토벤 5번 교향곡에서 동기를 확장시킨 방법으로 동일하게 재생산된 것이다. 빠른 템포로 러시아 민속 춤 (Trepak)의 리듬으로 둔갑시켰다. 선율의 대가답게 아름답고 다채로운 주제와 동기가 악장 곳곳에 넘쳐난다.



[4악장 제 2주제]



[4악장 종결부 주제]



장조로 변모된 운명의 동기가 승리의 팡파르로서 발전부를 개시하면서 운명의 강한 도전과 치열한 몸부림이 한데 엉켜 숨 막히는 질주를 펼친다. 재현부는 제 1주제가 저 음역 악기에서 나오고 바이올린은 상행하는 대선율로 긴장을 고조시킨다. 마침내 코다에 이르면 현악은 1악장 서주부의 운명의 동기를 기쁨의 합창으로 울부짖고 4악장 제 2주제가 마지막으로 힘껏 내달음친 뒤 트럼펫의 팡파르가 1악장 장송행진곡 주제로 승리를 외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우리는 클래식 음악을 사랑한다. 특히 오늘 연주회에서와 같이 다양한 시각을 한 곳에서 접할 기회는 참 귀하다. 바로크와 고전주의, 낭만주의 정신을 한데 아우르며 그 위대함에 경의를 표하는 오늘의 작품과 더불어 심포니송과 함께 연주자로서 그리고 감상자로서 이들의 오마주를 완성하여 보자. 애정 있는 우리의 귀 기울임과 동감, 손짓과 호흡에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우리를 위로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귀한 저녁시간이 되길 기대해본다.

## Igor Stravinsky

### Concerto in D "Basel" for String Orchestra

Concerto in D "Basle" for string orchestra was composed by Russian-American Composer Igor Stravinsky (1882~1971)'s in between the beginning of 1946 and 8 August of the same year in response to a 1946 commission from Paul Sacher (1906~1999) to celebrate the twentieth anniversary of the Basel Chamber Orchestra (Kammerorchester Basel), and for this reason i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Basle" Concerto. It was premiered on 21 January 1947 in Basel by the chamber orchestra, conducted by Paul Sacher.

Written for string orchestra, the Concerto in D is in three movements in the fast-slow-fast order of the Baroque concerto grosso, and features the contrast of concertino and ripieno typical of the concerto grosso. In the Concerto in D, the movements are Vivace, Arioso: Andantino, and Rondo: Allegro.

## Sergei Rachmaninoff

### Piano Concerto No.1 in F# minor, Op.1

Sergei Rachmaninoff (1873~1943), the Russian virtuoso pianist, conductor, and composer, composed his Piano Concerto No. 1 in F# minor, Op. 1, initially in 1891, at age 17-18. The dedication of the work was made to Alexander Siloti (1863~1945). He heavily revised the work in 1917. Rachmaninoff was a chronic rewriter. But he took the red pen to his First Piano Concerto more radically than to any other of his works. The central tutti of the first movement and the first half of the cadenza were newly composed, and the finale was just as extensively recast. The composer's main inspirations came from Edvard Grieg (1843~1907)'s Piano Concerto in A. The concerto consists of three movements: Vivace, Andante, and Allegro Scherzando.

## Pyotr Ilyich Tchaikovsky

### Symphony No.5 in E minor, Op. 64

The Symphony No. 5 in E minor, Op. 64 by Pyotr Ilyich Tchaikovsky (1840~1893) was composed between May and August 1888 and was first performed in Saint Petersburg at the Mariinsky Theatre on November 17 of that year with Tchaikovsky conducting. It is dedicated to Theodor Avé-Lallemant (1806~1890). Throughout his creative career, Tchaikovsky's inspiration went through extreme cycles, tied to his frequent reoccurring of deep depression and self-doubt. In mid-May 1888 he wrote to his brother Modest that he was convinced that he had written himself out and that he now felt neither the impulse nor the inclination to compose. By the end of the month, however, he set about "...getting a symphony out of my dulled brain, with difficulty." Inspiration from Beethoven's 5th Symphony that of triumph and fate, must have started to flow, for by the end of August, the gigantic Fifth Symphony was finished. The Symphony is in four movements: Andante – Allegro con anima, Andante cantabile, con alcuna licenza, Valse, Allegro moderato, and Finale.



## 심포니 송의 프로들

예 술 감 독	함신익
바 이 올 린	송지원 황예찬 강승희 김민하 김현지 김희영 문수빈 박승원 박주연 박준하 박지민 백서빈 손지오 오하은 옥영미 윤수정 이서영 이지원 임지수 전빛나 전지은 조인해
비 올 라	임선영 박소정 안예림 양희원 이선아 정하림 조혜림 황유선
첼 로	오재경 최예지 김소을 이한호 이해인 정혜술 조하영 홍지희
더블베이스	고부현 강명지 김민수 김여운 박소연 윤영진 이요한 임윤선
플 루트	김소희 김지원 하종수
오 보 에	함정준 양희재
클 라 리 넷	강석원 곽지현
바 순	이준철 고수경
호 른	Grzegorz Curyla James Chen 안지환 이석재
트 럼 팻	이진규 이창민
트 롬 본	Borja Martin 신경원
베이스 트롬본	이민환
튜 바	강덕현
팀 파 니	박병진
타 악 기	손혁진 유요한
크리에이티브 팀	고희진 정다윤 최성주 한지민

\*명단은 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함신의 오케스트라 · 심포니 송 2023 마스터즈 시리즈 V



# 한수진과 펠리카노

Soojin Han & Pellicano

2023. 5. 20. Sat. 8:00pm

롯데콘서트홀 | LOTTE CONCERT HALL

Sibelius  
Violin Concerto in D minor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Grieg  
Peer Gynt Suite No. 1 & 2  
그리그, 페르균티 모음곡 제1번 & 제2번

바이올린 한수진  
Soojin Han, Violin

객원지휘 줄리안 펠리카노  
Julian Pellicano, Guest Conductor

UPCOMING CONCERT



티켓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 C석 2만원 문의 심포니 송 02 549 0046 | 02 549 0947 예매 롯데콘서트홀 YES24.COM 공연 후원 NOROO EG 주식회사 미지 하나은행 SAMSUNG FST SEBIONG DSK TSE GOLFZON 코스모스머키 COSMOS CORPORATION GPS 화광교역(주) VILLAGE

함신의 오케스트라 · 심포니 송 2023 마스터즈 시리즈 VI

## 임주희와 심포니 송의 베토벤 황제 협주곡

BEETHOVEN PIANO CONCERTO NO. 5 'THE EMPEROR'

Beethoven: Piano Concerto No. 5 in E $\flat$  major, Op. 73 'The Emperor'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Beethoven: Symphony No. 7 in A major, Op. 92  
베토벤: 교향곡 제7번

2023. 06. 27. Tue. 7:30pm 롯데콘서트홀

지휘 함신의 Shinik Hahm, Conductor  
피아노 임주희 Ju-Hee Lim, Piano



SHINIK HAHM & SYMPHONY S.O.N.G 2023 MASTERS SERIES

함신의 오케스트라 · 심포니 송 2023 마스터즈 시리즈 VII

## 함신익의 브람스

2023 BRAHMS FESTIVAL 2

Brahms: Symphony No. 3 in F major  
브람스: 교향곡 제3번

Brahms: Symphony No. 1 in C minor  
브람스: 교향곡 제1번

2023. 09. 09. Sat. 8:00pm 롯데콘서트홀

지휘 함신익 Shinik Hahm, Conductor



SHINIK HAHM & SYMPHONY S.O.N.G 2023 MASTERS SERIES

함신의 오케스트라 · 심포니 송 2023 마스터즈 시리즈 VIII

## 위대한 차이코프스키와 슈베르트

THE GREAT TCHAIKOVSKI & SCHUBERT

Tchaikovsky: Violin Concerto in D major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Schubert: Symphony No. 9 in C major, D. 944 'The Great'  
슈베르트: 교향곡 제9번 '그레이트'

2023. 10. 17. Tue. 7:30pm 롯데콘서트홀

객원지휘 대럴 앙 Darrell Ang, Guest Conductor  
바이올린 송지원 Ji-Won Song, Violin



SHINIK HAHM & SYMPHONY S.O.N.G 2023 MASTERS SERIES

함신의 오케스트라 · 심포니 송 2023 마스터즈 시리즈 IX

## 이정현의 첼로 퍼레이드 '드보르자크와 굴다'

DVOŘÁK & GULDA BY CELLIST CHRISTINE J. LEE

Dvořák: Slavonic Dances No. 1-8  
드보르자크: 슬라브 무곡 제1-8번

Dvořák: 'Sileint Wood' for Cello and Orchestra  
드보르자크: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고요한 숲' 외

Gulda: Concerto for Cello and Wind Orchestra  
굴다: 첼로와 관악합주를 위한 협주곡

2023. 11. 18. Sat. 8:00pm 롯데콘서트홀

지휘 함신의 Shinik Hahm, Conductor  
첼로 이정현 Christine J. Lee, Cello



SHINIK HAHM & SYMPHONY S.O.N.G 2023 MASTERS SERIES



## 심포니 S.O.N.G 법인 / 개인 후원 안내

구 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예우
마에스트로	3억원 이상	기업연주* 6회 제공 2023시즌패스 - R석 40매, S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마 스템즈	1억원 이상	기업연주* 2회 제공 2023시즌패스 - R석 25매, S석 25매 증정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합신의 기업방문공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광고
말 러	5000만원 이상	기업연주* 1회 제공 2023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브 램 스	3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2회 제공 2023년 시즌패스 - R석 1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브 루 크 너	2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3년 시즌패스 - R석 10매 증정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슈 베 르 트	1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3년 시즌패스 - R석 10매 증정	
베 토 벤	500만원 이상	2023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추가구매티켓 20%할인	
쇼 팅	300만원 이상	2023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추가구매티켓 20%할인	
모 차 르 트	100만원 이상	2023년 시즌패스 4회 - S석 2매 증정 추가구매티켓 20%할인	
하 이 든	1만원 이상		

-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 송)
- 후원회는 수시 가입 가능, 유효기간은 후원회비 입금일로부터 1년입니다.
-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가능합니다.
-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Melodia' 기업/법인 후원약정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Mobile				
	E-mail				
약정금액	※ 월 기부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500만원 <input type="checkbox"/>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30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일시납	일시납 _____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동이체 은행정보	은행명	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란을 채워주십시오

개인  또는 법인

약정금액 \_\_\_\_\_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후원계좌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신청방법 :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 010-5807-0947 이메일 : management@symphonysong.com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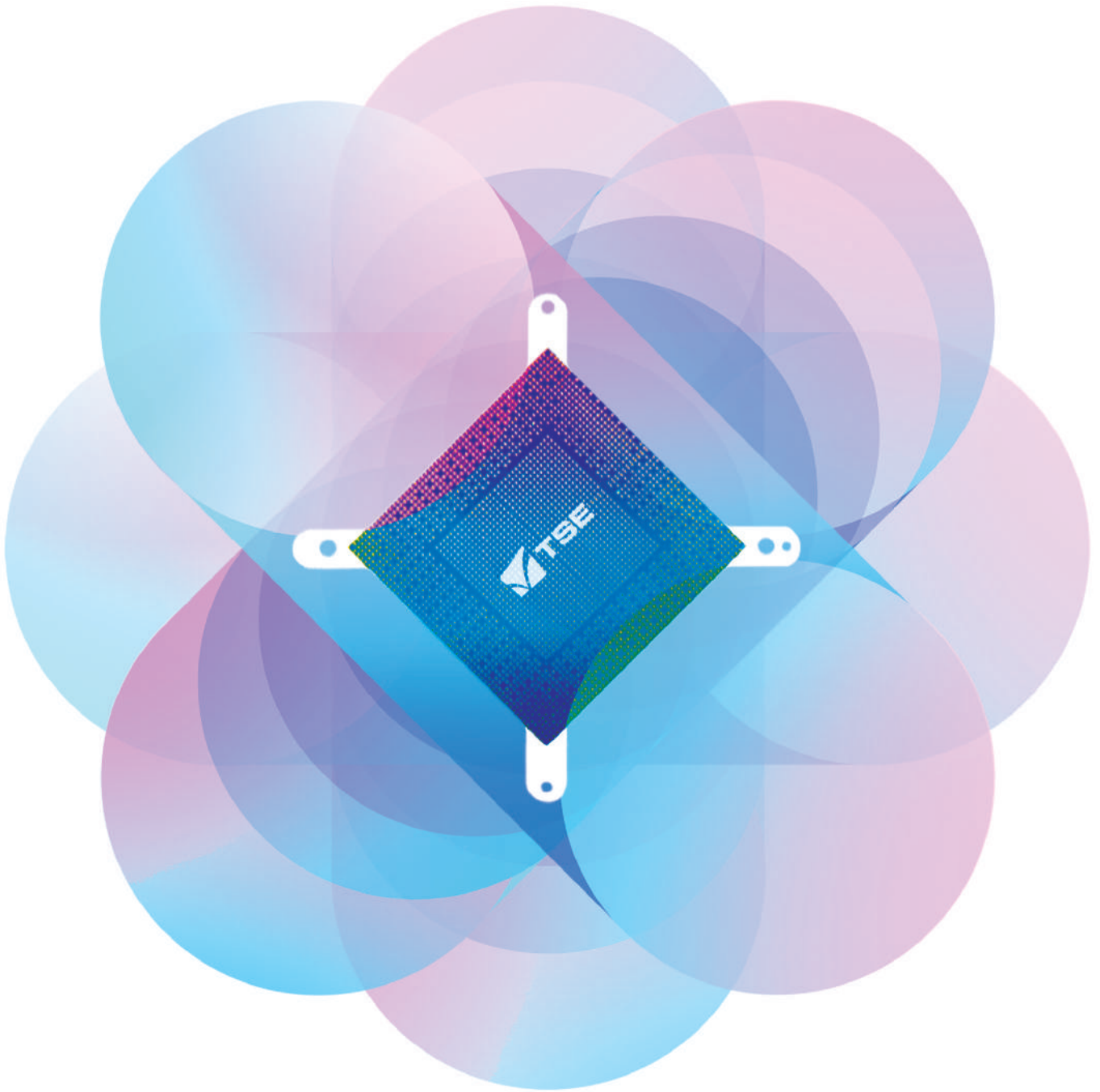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 TUNE THE 5G WORLD

TSE는 초고속 반도체에 대한  
TOTAL TEST SOLUTION을 제공합니다.



TSE IS A GLOBAL LEADER IN HIGH-SPEED AND HIGH-PERFORMANCE SEMICONDUCTOR TEST EQUIPMENT.  
TSE IS A PREMIER SUPPLIER OF BOASTING A BROAD RANGE OF PROBE CARD FOR WAFER SORT AND TEST INTERFACE AND SOCKET SOLUTIONS FOR PACKAGE TEST WHICH IS THE MOST DEMANDING TEST SCENARIOS.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 1길 189  
[www.tse21.com](http://www.tse21.com)  
TSE Co., Ltd.

# 새로운 커피 습관 : 언더프레셔

언더프레셔의 다양한 홈카페 컬렉션 제품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MARKET Kurly** **coupang** **NAVER** 에서 언더프레셔를 검색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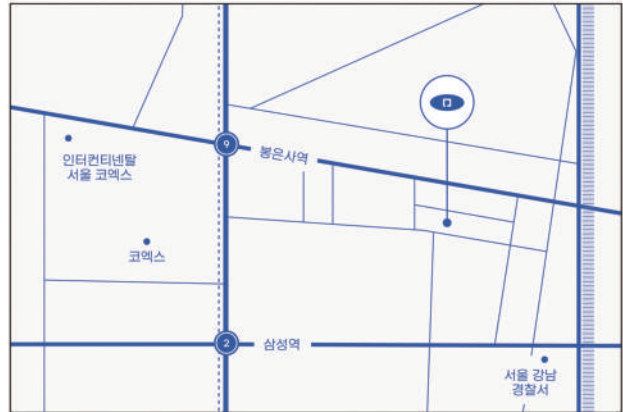


## OFFLINE SHOP



### <언더프레셔 삼성점>

맛있는 커피와 함께하는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 [www.underpressure.co.kr](http://www.underpressure.co.kr)



###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37, 1층(삼성동)  
☎ 82 (0)2 2019 8990

Beyond to the world  
FA&BIO  
Global **No.1** Company  
**DSK Group**



FA부문 - FPD&SOLAR&의료장비, Linear System, Laser System, Probe  
BIO부문 - 보툴리눔독소제제 PROTOXIN, 필러, 바이오베터



보툴리눔독소제제  
PROTOXIN, 필러,  
바이오베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판매



Diode Pumping Solid  
State Laser End Pumped  
Las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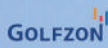
#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딘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웃·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GOLFZON NEWDIN GROUP



# leuto™

레우토

## 영 유아를 위한 수제작 토퍼 매트리스

3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탄탄한 토퍼를 제작해 드립니다.  
(맞춤제작 가능)

영 유아용 KC 인증 및 모든 안전 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 기술이 힘이다!

## 세계 최고의 전자소재기업, EG

전자기기 부품, 연료전지, 전기차, 수소차까지 대한민국 친환경 소재 산업을 위한

EG의 새로운 기술과 도전은 계속됩니다.

최초와 최고의 기록으로 생활 속 친환경 소재산업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EG, 작은 소재 하나가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전자소재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EG  
www.egcorp.co.kr

SERIES I

바람과 실

when strings meet winds

2023. 07. 06. Thu.  
7:30pm

ILSHIN HALL  
일신홀

M. Dring

Trio for Flute, Oboe and Piano

W. A. Moz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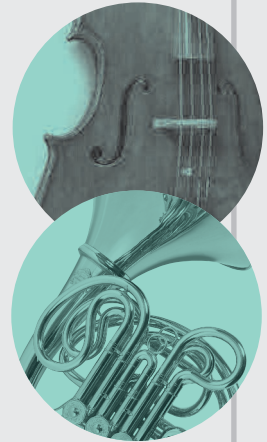
Flute Quartet in D Major K. 285

B. Britten

Phantasy Quartet for Oboe, Violin, Viola and cello

E. Ewazen

Quintet for Bass Trombone and strings  
(국내초연)



SERIES II

Deqing Wen과  
베토벤

2023. 07. 13. Thu.  
7:30pm

ILSHIN HALL  
일신홀

Deqing Wen

The Trill of Steppe for Piano Trio (1997)

Ink Splashing for String Quartet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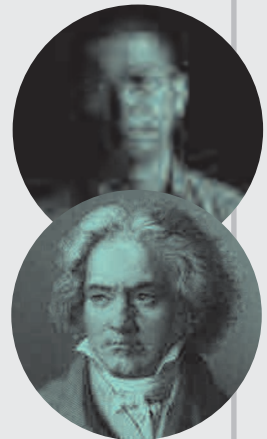
Love Song and River Chant for piano solo (2006)

박희정

세계 초연 곡

L.V. Beethoven

Piano Trio No. 4 in B ♭ major, Op.11 'Gassenhauer'



SERIES III

김상운 초청  
실내악 음악 축제

2023. 08. 18. Fri.  
7:30pm

ILSHIN HALL  
일신홀

L. Spohr

Fantasy and Variations on a theme by Danzi, Op.81

J. Françaix

Quintet for Clarinet and String Quartet

J. Brahms

Clarinet Quintet in B minor, Op.115



# SYMPHONY S.O.N.G 2023 MASTERS SERIES

## 함신익 오케스트라 · 심포니 송 2023 마스터즈 시리즈

함신익 오케스트라, 심포니 송이 당신을  
2023 마스터즈 시리즈로 초대합니다.

05.20

Sat 20:00



### 한수진과 펠리카노

Sibelius by Soojin Han and Pellicano  
\* Guest Conductor - Julian Pellicano

#### Sibelius, Violin Concerto in D minor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 한수진, 바이올린

#### Grieg, Peer Gynt Suite No. 1 & No. 2

그리그, 페르귤트 모음곡 제1번 & 제2번

06.27

Tue 19:30



### 임주희와 심포니 송의 베토벤 황제 협주곡

Beethoven Piano Concerto No. 5 'The Emperor'

#### Beethoven, Piano Concerto No. 5 in E flat major 'The Emperor'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 임주희, 피아노

#### Beethoven, Symphony No. 7 in A major

베토벤, 교향곡 제7번

09.09

Sat 20:00



### 함신익의 브람스

2023 Brahms Festival II

#### Brahms, Symphony No. 3 in F major

브람스, 교향곡 제3번

#### Brahms, Symphony No. 1 in C minor

브람스, 교향곡 제1번

10.17

Tue 09:30



### 위대한 차이코프스와 슈베르트

The Great Tchaikovsky & Schubert \* Guest Conductor - Darell Ang

#### Tchaikovsky, Violin Concerto in D major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 송지원, 바이올린

#### Schubert, Symphony No. 9 in C major 'The Great'

슈베르트, 교향곡 제9번 '그레이트'

11.18

Sat 20:00



### 이정현의 첼로 퍼레이드 '드보르자크와 굴다'

Dvořák & Gulda by Cellist Christine J. Lee

#### Dvořák, Slavonic Dances No. 1-8

드보르자크, 슬라브 무곡 제1-8번

#### Dvořák, 'Silent Woods' for Cello and Orchestra

드보르자크,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고요한 숲' 외 1곡 — 이정현, 첼로

#### Gulda, Concerto for Cello and Wind Orchestra

굴다, 첼로와 관악합주를 위한 협주곡 — 이정현, 첼로

12.14

Thu 19:30



### 2023 송년음악회 '합창'

Beethoven's 'Choral' Symphony

#### Beethoven, Symphony No. 9 in D minor 'Choral'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 국립합창단

— 소프라노 김순영,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이명현, 바리톤 김경래

\*본 프로그램은 주최 측과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4월 한정  
마스터즈 6회 패키지  
특별 조기할인

R석 100,000원 X 6회 = 600,000원

S석 70,000원 X 6회 = 420,000원

A석 50,000원 X 6회 = 300,000원

480,000원

336,000원

240,000원

구입 문의 | 심포니 송 사무국(02-549-0046)